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8월 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큰 사고로 위중한 상태가 된 남편과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이 복 순 -

저는 시골 오지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을에서 저의 부모님도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고, 여름과 겨울에 학교가 방학을 하면 도시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내려와 여러 마을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가르쳐 주는 율동과 찬송가로 춤추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별천지에 온 것처럼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때 배우고 부른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한 후에 안양시 비산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 비산사거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었고, 주일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밝고 행복해 보여서 ‘저 교회에는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이 계시나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한 작은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홀로 되신 시어머님이 우상숭배에 열심이어서 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며느리인 저에게 “아범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네가 책임지고 말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사에 다녀오셔서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 절대 남편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친정에 가신 날, 남편이 오전 근무만 하고 작은 용달차를 불러서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저와 아이들의 옷가지와 이불 등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차에 싣고는 군포가 가까운 다른 동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 그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 몰래 이사를 하고 제 마음은 걱정 반, 기쁨 반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섭던 시어머님이 지금 당장 찾아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자 남편도 어머님이 걱정되었는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 하던 술을 마시는 등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님과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은 비산사거리에 있는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라며, 교회당을 크게 지어서 이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남편과 저희 집 상황을 말해주고 우선 내가 먼저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후인 주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분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성전에 들어서는데,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고 기대감으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그사이에 교회가 부흥하여 그처럼 큰 교회가 된 것에 놀랐고 또한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감동되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가락을 다쳐 잘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업고 수요일에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발가락에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발가락이 나아져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차 안 타고 제 발로 걸어서 갈래요.” 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옛날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가와 그 날 예배시간에 불렀던 찬송가를 다시 부르며 힘찬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저녁,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동안 나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한 남편에게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말이 나온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자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당신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나은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 다시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시고, 배를 가볍게 하는 두드러기도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갔더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의 여기저기에 별절게 나 있던 두드러기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데 갑자기 글씨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른 덮었다가 다시 펼쳐서 소리내어 읽는데, 이번에는 혀가 말리면서 입에서 크고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섭고 떨려서 얼른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한 다음 수구역장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멀리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일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자랑을 하던 남편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에서 생활하는 큰아들이

급하게 직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남편을 보니 상태가 아들이 전한 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함몰된 얼굴의 이곳저곳을 뼈가 찢리고 있고 목과 오른쪽 팔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모두 상하고 코도 귀가 있는 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머리를 크게 다쳐 뇌경색 증상까지 있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운 채 수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왼팔 하나만 간신히 움직이는 상태여서 제 눈에도 의술로는 남편이 회복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지 20일이 되자 병원에서는 수술도 위험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아들들에게 저는 “너희들은 집에 가거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빠의 치료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도 아빠를 잘 수술해 줄 의사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엄마가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간신히 잠을 자는 그 짧은 시간을 빼고는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아이들은 돌아가고 저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와서 말하기를 “아주머니! 이제 아저씨의 치료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하였습니다. “왜요?” 하고 묻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오늘 오셔서 아저씨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머니를 부르실 거예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교수님, 제 남편을 꼭 살려주세요!” 하였더니, 제 얼굴을 뺨히 쳐다보고는 “아주머니! 혹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네!”하고 얼른 대답하니 “그렇군요. 제가 아직 이 병원에 올 때가 아닌데 빨리 발령이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군요.” “오늘 검사하고, 수술실에 두 팀이 들어가서 수혈하면서 수술할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믿는 그분께 맡깁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저는 ‘영영’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 여러 과목에 걸쳐 차분하면서도 일사천리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수술을 마치고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3년간 재활병원에 있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하시고 치료를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의 신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병든 이와 그 가족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2단원 :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9과) 인간의 창조와 타락

- 본문 : 창세기 1:26-31, 2:15-17

• 요절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 찬송 : 30장(새찬송가 14장), 40장(새찬송가 79장)

19세기 영국인 다윈(1809-82)에 의해 주장된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유력한 이론으로 오늘날 세상 학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되, 무생물에서 간단한 구조를 가진 하등 생물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 는 동안 점차 고등 생물로 진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인간도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원숭이과에 속하는 유인원을 인간의 조상으로 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다른 동식물과 조금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심으로, 생명의 기원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 의의를 바로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모든 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고 하시고,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엡 4:24)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와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제 본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2.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났으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였고, 이와 함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17)는 금령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음받은 존재가 무슨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은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탐심으로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간교한 뱀의 말을 믿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3.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손상되어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벌거벗은 채였으나 그 때는 죄가 없으므로 죄책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였던 까닭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벌거벗은 데 대하여 수치를 느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복된 교제가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아담의 타락은 사람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는 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행복했던 인류 최초의 가정에 불화가 짙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불화하고 또 그를 죽인 일도 알고 보면 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에게 순복하며 각기 이름을 부여받았던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대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진화론을 추종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되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